이태준의 『청춘무성』 考

- 계몽의 서사와 여성(성)

송인화

국문초록

본 고는 1940년 발표된 이태준의 후기 장편 소설인 『청춘무성』을 대상으로 계몽성과 여성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청춘무성』은 이태준 장편 소설의 특징적인 계몽소설의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이념이 서사를 추동하면서 감성/이성, 사적/공적, 육체/ 정신, 자연/문명, 개인/ 사회, 그리고 여성/남성 등의 이항대립적 개념이 작품의 주요한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근대를 자기목적으로 추구하는 계몽적 서사에 내재된 여성 억압적 특징을 인물의 형상화와 계몽의 성취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의 애정갈등과 후반부의 사회참여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야기는 애정이라는 사적인 욕망을 제압한 세 남녀가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공간적인 영역의 이동은 시간적인 메타포로 전이되어 전자가 부정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전근대적 세계라면 후자는 지향해야할 공적인 영역으로서 근대적 세계가 된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 제시되는 전근대성이 한결같이 여성적 젠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여성은 근대성에 미달된 영역으로서 계몽을 필요로 하는 열등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성인물들의 자질로 구성되는 여성성은 그 자체로 근대성에 도달하기 데 위험한 방해물로 제시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소녀적 감상성에 매몰된 미숙한 인물이거나 육체적 열망에 사로

잡힌 탕녀로 제시된다. 이들은 모두 비합리적이고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들로 이러한 이미지가 제공하는 감성성과 육체성은 전근대적인 것이자 동시에 여성적인 전유물로 제시되면서 계몽의 서사에 의해 끊임없이 억압되는 욕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표상들은 중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젠더 표상과 은밀히 내통한다. 그리고 결국 근대는 여성성을 억압함으로써 보장된다. 여성들은 성적 정체성이 제거되고 양육의 헌신성만이 강조된 모성과 교사 역할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지만 가부장적인 젠더 경계의 성역할 모델은 엄존하여 영웅적인 남성의 부차적인 역할로 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성적욕망과 감성, 그리고 모성을 구성내용으로 하는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는 이러한 계몽의 담론은 결국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식민지 지배담론에 봉사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 핵심어 : 계몽성, 여성성, 감성, 육체성, 성적 욕망, 훈육적 주체, 젠더 경계의 성역할 모델.

1. 근대와 여성

근대가[1] 여성과 맺는 관계는 그리 썩 화해롭지 못하다. 봉건적인 구속의 틀과 전근대적인 미몽의 속박에서 인간을 평등과 합리적 인식의 세계로 이끈 근대의 빛은,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비춰지지는 못한 듯하다. 물론 그것은 최근의 논의에서 누누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근대가 밝은 얼굴의 다른 한 편에 가혹한 억압의 폭력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력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가해진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유독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의 정신적인 출발점을 제공한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의 엄정한 분

1) 이 글에서는 '근대'의 개념을 특정한 내용을 갖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시대나 혹은 작품에 따라 자기내용을 갖는 구성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근대는 일반적으로 근대성이라고 말할 때 규정되는 개념을 공유하면서도 작품 내에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리와 정신에 의한 육체적 메카니즘의 엄정한 통제를 주창한 이래 육체와 비이성, 그리고 자연은 정신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되어야 할 타자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가혹한 동일화의 기제 속에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러한 타자들은 여성성과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젠더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내포한 것이었다. 근대의 금욕적 규율로 다스려져야 할 열등한 대상으로서의 주술적인 미신과 육욕적 욕망, 그리고 합리적 경계가 없는 자연과 감성은 여성의 모습에 결집되었고 근대화 프로젝트의 근본적 차원이 가부장제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2] 근대가 평등의 이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여성을 정치적 삶에서 배제하는 형제애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리타 펠스키의 적절한 지적이나[3], 근대화 프로젝트가 남성성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는 한 결국 근대와 여성은 본원적인 배리관계에 있으며 페미니즘은 근대를 물어찢는 것 외에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우에노 치즈코의 날카로운 분석은[4] 모두 근대와 여성이 놓여 있는, 이러한 모순의 갈등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근대의 서사를 읽는다고 할 때 우리의 물음은 여성(성)과 근대(성)이 마주서 있는 이러한 갈등의 지점을 찾아내는 데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근대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서사의 기본 동력이 되는 계몽주의 소설에서 여성의 성적 억압을 읽어내는 것은 근대주의의 억압성을 전복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가능한 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계몽의 서사는 가부장적인 현실원칙의 메카니즘을 자기인식으로 내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근대주의 문학적 담론의 억압성을 강하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이태준의 후기 장편소설 중 하나인 『청춘무성』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읽으려 한다. 근대를 이상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근대적인 것으로 억압되는 것은 무엇이며 근대라는 이름으로 도달한 가치의 내용은 여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보

2) 브라이언 터너, 임인식 옮김, 『몸과 사회』(몸과 마음, 2002), p.48
3)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204
4)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203

려는 것이다.

이태준 소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근대와의 긴장이 함축되어 있다. 즉 근대라고 하는 당면한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따라 장르가 구분되기도 하고 또 작품경향이 변화하기도 한다.[5] 단편이 '예술'이라는 미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대의 물질주의적 속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편은 현실참여의 강한 의지 속에 근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몽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특히 장편은 대부분 여성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에서 그의 장편은 여학생소설로 일컬어지거나 여성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태준 소설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되는 근대적 현실에서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심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여성들이 한결같이 계몽의 대상으로 즉 부정해야할 전근대적인 성격을 체현한 인물들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여성들이 모두 여학생 즉 근대적 교육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대적 교육의 이상이 계몽의 서사가 지향하는 근대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생각할 때 이미 근대성의 주요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는 계몽의 정신이 추구했던 근대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근대라고 하는 이상적 기표에 도달하기 위해 배제하고 억압한 실제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구성될 것이다.

2. 부정해야할 세계 - 전근대 / 여성

『청춘무성』은 1940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다.[6] 다른 장

5) 졸고, 『이태준 소설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편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이태준 장편소설 특유의 계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서사의 기본 구도 역시 다른 장편들과 마찬가지로 애정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와 사회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이 연애라고 하는 개인적 욕망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인 세계' 라면 뒷부분은 사회활동을 통해 현실에 참여하는 '공적인 세계' 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사적인 세계는 다시 전근대적인 것으로, 공적인 세계는 근대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를 성취하는 순차적인 진행을 보여준다.

작품의 갈등은 고은심과 최득주라는 두 여학생과 원치원이라는 교목 사이에서의 엇갈린 연애관계에서 비롯된다. 눈에 띄는 미모와 소녀적인 감상성을 소유한 고은심과 동경유학생인 목사 원치원은 서로 은밀한 사랑을 나눈다. 반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급생활을 하던 최득주는 신앙적 양심과 동정심에서 도와주는 원치원의 호의를 오해하여 그에게 흠모의 정을 품는다. 우연한 기회에 고은심과 원치원이 연인 사이임을 눈치챈 최득주는 자신과 원치원이 불순한 관계라고 누명을 씌워 원치원을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고 고은심과도 헤어지게 만든다. 동경으로 건너가 번역 생활을 하던 원치원은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던 고은심과 만나지만 고은심의 약혼자가 찾아와서 두 사람의 애정을 확인하고 물러나자 오히려 그가 자격지심에서 고은심과 결별을 선언한다. 이후 원치원은 수리사업과 광산업으로 재벌이 되고 고은심은 모교의 선생이 되며 최득주는 원치원의 도움으로 여급의 복리를 위한 사회활동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고은심과 최득주 두 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개성을

6) 『청춘무성』은 1940년 3월 12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신문장편 소설이다. 이태준은 초기 장편에서부터 계몽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러나 1933년 즈음한 시기까지의 전반기 장편이 독립의 염원을 암묵화시킨 애국계몽기의 계몽성과 정신적 친연성을 갖는다면 후기 장편의 계몽성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정당화시켜주는 근대주의와 연결된다. 따라서 근대주의 계몽성과 여성성의 관계를 탐색함에 있어서는 1938년 이후 발표된 장편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적인 자질이 있는데 바로 '감정적 충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즉 이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193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학생'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는 직명과는 상관 없이 대상을 이지적으로 통찰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이른바 '정신'이 전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제시된다. 감성적 충동성은 이 두 여성을 전근대적 세계에 속한 인물로 한정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고 부르는 결정적인 자질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두 사람의 개성이 같은 것은 아니어서 고은심은 처녀적 순수성을 간직한 감상적 소녀로, 최득주는 육체의 욕망에 함몰된 히스테릭한 탕녀의 이미지로 제시된다.

고은심의 경우 '恩心'이라는 이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소녀적인 감수성과 수동성으로 그녀의 성격이 특징지어진다. 푸른 하늘을 보며 바다를 연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친구의 우울을 실연의 결과로 생각하는가 하면 〈한 평생 여행하며 보헤미안〉으로 죽고 싶다는 낭만적인 꿈으로 채색된 소녀이다. 그래서 작품에서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연애'라고 하는 애정관계에만 쏠려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낭만성과 감상성은 거듭 〈단순하다〉라는 어사로 표현되며 고은심이라는 여성의 고유한 자질이 된다. 곧 현실의 복잡한 연관관계는 물론 생활의 고난을 모르고 따라서 사회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가 원치원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이러한 단순함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최득주가 두 사람 사이를 질투하여 투서를 하지만 원치원에게 와서 사건의 '복잡한' 내막을 듣고 이성적으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절교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 중인 사촌오빠의 주선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죠오지 함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도 서양에 대한 막연한 그녀의 동경과 낭만적 꿈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그녀에게는 진지한 내면의 성찰이나 정신적인 사유는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언제나 원치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정신적 미숙아' 상태로 제시된다.

'사랑도 생활이다. 꿈은 아니다. 생활을 그처럼 단순한 꿈의 소녀와 더부러 설계하는건 근본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7]

'내가 참 너무 단순했다! 원선생에게 보다두 사진만 본 사람헌테.... 사랑한 적인 없는 사람헌테..... 내 자신이 외국인 되는 것두 충분헌 고려가 없이.... 사랑, 결혼, 생활, 일생, 이 이상 중대한게 뭔가? 이거야 말로 내가 정말 좋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남자헌테 리이드돼야 헐게 아닌가? 죠오지 .함이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일까?'[8]

감성이 정신적인 무지로 다시 사회에 대한 몰이해로 연결되고 있다. 또 감성과 정신, 연애와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항대립적으로 분리되면서 감성과 연애가 열등한 자리에 놓임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성이 근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감성은 다만 이성의 결여태로서만 인지된다. 작품에서 근대성은 바로 그러한 감성을 배제함으로써 도달되는 가치가 되는데, 배제해야 될 부정의 대상으로서의 전근대성이 여성인물들에게 고유한 성격으로 체현됨으로써 젠더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고은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그녀의 '처녀성'이 동반하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낭만적인 감성적 특성이 '단순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성과 대치된 정신적 백지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녀가 가진 처녀성은 작품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녀의 매력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원치원이 최득주가 아닌 고은심을 끝까지 그리워하면서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그녀가 '깨끗한 처녀'라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이미지는 싱싱함, 향긋함, 소긋함, 수줍음 등으로 제시되면서 원치원에게 감각적으로 성적 매력을 유발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녀성이 감상성과 연결되어서는 미성숙한 사회의식의 국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성적인 섹슈얼리티의 시각에서 드

7) 이태준,『청춘무성』, 이태준문학전집 6, (서음출판사,1988), p.149 앞으로의 인용은 같은 책을 사용한다.

8) 이태준,『청춘무성』, 위의 책, p.211

러나게 될 때는 성적 매력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여성의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개입한 것으로, 그런 만큼 처녀성을 상실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매우 가혹하다.

고은심과 함께 계몽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인물이 최득주이다. 그녀는 처녀성을 상실한 '히스테릭한 악녀'로 제시된다. 그녀의 악마성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교육자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신을 동정하는 원치원의 호의를 애정으로 착각하여 육체적으로 유혹하거나 전당포에 맡긴 시계를 대신 찾아주는 치원에게 팔목을 내밀어 직접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녀와 관련되어 제시되는 삽화들은 모두 그녀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최득주가 처녀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부양해야할 가족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다. 눈이 먼 어머니와 무기력하게 화내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무런 생활능력이 없는 할머니 등 가족 모두 그녀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최득주가 여급생활을 하고 또 후원자에게 육체를 제공하며 돈을 받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그러한 현실적 조건보다는 처녀성 상실을 육욕적인 욕망과 결부시켜 성격적인 음탕함이나 사악함으로 몰아감으로써 최득주에게 강력한 비난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그리하여 천진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육욕적에 빠진 그녀는 원치원에게 배제의 대상이자 동시에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에게 최득주는 〈악날한 수단으로 세상을 찢어나가는〉 애욕에 가득찬 불결한 인물이다. 따라서 〈새 순진한 처녀로 갱생〉이 요구되는, 고은심과 더불어 그가 인도해야 할 또 다른 계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득주가 체현하고 있는 '육체성'이 계몽적 훈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이성적인 자각과 종교적인 자제력을 위협하는 '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늦은 밤 원치원의 하숙에 찾아와 잘 곳이 없다며 그의 방에서 재워달라는 최득주의 요구는 그러한 육체의 죄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삽화이다. 원치원은 그녀가 발산하는 육욕적인 매혹에 강하게 흔들리지만 그

것을 '악'으로 치부하여 종교적인 힘으로 빌어 애써 물리침으로써 이성과 도덕적인 균형을 잡으려는 고된 노력을 보여준다.

> 전등을 가리고 눈을 감으니 후각이 예민해진다. 여자의 머릿내, 살내, 원선생은 생전 처음 당해보는 환경이요, 기분이요, 정욕이였다. 가슴이 후들거리고, 목이 마르고, 침을 삼키자니, 꿀꺽소리가 크게 나고....
>
> (중략)
>
> 저고리 벗은 팔, 속치마를 입었으나 어깨허리를 여미었던 '스냅'이 빠져 분결 같은 가슴이 보인다. 분결 같은 빛깔보다도 그 가슴의 무게,
>
> 원선생은 바윗덩이라도 안아 올릴듯한 억센 힘을 두팔에 부르르 느낀다.[9]

> '이다지 악의 뿌리가 깊이 박혔구나!'
>
> 원선생은 성경책을 고요히 덮고 득주의 영혼을 위해 울고 싶은 감동으로 기도하였다.
>
> "아버님께서 최득주를 구하시려 제게 인도하신 줄 아옵니다! 제게 이처럼 거룩한 일을 마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제게 먼저 이힘을 주소서, 제게 먼저 그의 유혹과 그의 심리를 투시할 만한 총명을 주소서, 한사람의 영혼을 구해낼 신념이 없이 어찌 하느님 사역에 나서오리까? 최득주는 제가 전력을 받혀 아니 일생이라도 받혀 끝까지 구하겠습니다. 맹서하옵나이다...."[10]

최득주로 인해 촉발된 육체적인 욕망을 원치원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 원치원은 둘 사이를 '성경'으로 가로막음으로써 종교적인 힘을 빌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금욕성이 계몽의 담론과 결합하며 육체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사로서의 원치원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최득주의 유혹을 물리칠 때 그것은 강력한 수단이 된다.[11] 최득주가 주인물이 되는 소단락의 제

9) 이태준, 『청춘무성』, 위의 책, pp.72-73
10) 이태준, 『청춘무성』, 위의 책, p.76

목이 '불나비', '독한향기' 등으로 제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녀의 성적인 욕망은 종교적 금욕성과 도구적인 이성에 의해 규율지워진 억압적인 근대의 틀을 위협하는, 그리고 근대적 도덕규율의 엄숙성을 깨뜨릴 수 있는 악마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득주가 지닌 육체성의 파괴적인 속성은 원치원과 고은심의 관계를 깨뜨리는 데서 더욱 극적으로 제시된다. 고은심과 원치원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최득주가 학교에 투서를 하여 원치원을 모함함으로써 그를 학교에서 쫓겨나게 하는 한편 고은심에게도 오해를 유발시켜 결국 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최득주의 히스테릭한 파괴성이다. 그녀의 과민한 애욕과 질투가 순수하게 맺어질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유난히 빠르게 그 사람의 속성을 파악하는 그녀의 예민한 눈치 역시 히스테릭한 과민성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최득주에게 각인된 육체성과 성적인 욕망은 더욱 부정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최득주가 보여주는 육체적인 욕망은 '어둠'과 '죄'의 이미지로 나타남으로써 청교도적인 목사이자 교사인 원치원에게 불안하고 위협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근대화 과정 속에 편입되어 있는 그에게는 통제되고 억압되어야 할 훈육의 대상일 뿐인 것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최득주를 '여학생'과 대비시켜 '여인'이라고 거듭 부른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적인 충동이 개인적 성격이 아닌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 즉 여성성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아랫목 머리맡에는 책상보다도 경대가 먼저 놓여 있다. 경대는 한길이나 될 듯이 큰 것으로 거울 앞에는 붉고 푸른 화장품 병들이 여학생의 것으로는 지나

11) 이 작품에서 기독교와 근대주의가 갖는 친연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치원이 최득주와 관련하여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는 부분에서 청교도적인 금욕주의에 의탁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우리문학의 근대성과 기독교와의 정신적인 연관성은 물론 여성 억압적 상황을 해명하는 데 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치게 풍성한 진열이 되어 있다. 벽바른 종이도 순색이 아니라 어룽어룽한 반자지를 써서 양실 기분을 내였고 미닫이틀 우엣 사진틀도 대리석 기둥이 있는 정원 연못에서 미인이 목요하고 있는 그림이다. 서양 남자배우의 사진도 몇장 보였다. 그의 언니가 쓰던 방이라 짐작하매 전부가 득주의 취미로 볼 수는 없으나 아무턴 여학생보다는 여자를 더 느낄 수 있는 방이었다.[12]

"인전 득주도 나 없이도 훌륭한 광명의 길을 걸어갈 줄 믿우, 득주가 참말 이로부터옳은 길만 걸어간다면 내가 그간 받은 세상의 오해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오, 득주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인 새 순진한 처녀로 갱생하는데 대해선 난 오이려 좀더 거대한 희생을 받히고 싶고."[13]

첫 번 인용문은 학교에서 쫓겨난 원치원이 최득주를 찾아가 그녀의 방을 보며 하는 생각이며, 두 번째 것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득주에게 치원이 위로하는 말이다. 색색의 다양한 화장품과 색벽지, 그리고 음화 등으로 치장된 방은 육체의 욕망으로 충만한 최득주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에 '여학생보다는 여자' 라는 말로 집약되어 지칭됨으로써 육체적 욕망의 충동성이 다름 아닌 여성성의 고유한 자질임을 보여준다. 또 여급생활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결심하는 득주에게 치원이 바라는 것이 〈새 순진한 처녀로 갱생〉임을 말하는 데서도 그러한 점은 확인된다. 여기에서 '여성' 혹은 '여인' 이라는 명칭은 '여학생' 이라는 명칭과 대립되면서 성적인 쾌락을 생산하는 처소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 '여학생' 이 학생이라는 사실의 개입으로 성적인 의미가 일정부분 탈각되면서 중성화되는 것에 비해 '여성' 은 성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육체로 기표화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호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계몽의 담론이 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의 핵심적 내용이 '여성성이 부정된 처녀성' 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곧 성적 정체성이 거세된 무성화된 여성을 고대하는 것으로[14] 육체의

12) 이태준, 『청춘무성』, 위의 책, p.134
13) 이태준, 『청춘무성』, 위의 책, p.150

욕망을 부정하는 계몽의 담론이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깊이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적 자각과 대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사적인 욕망으로서의 성적인 충동의 진원지가 바로 여성(성)에 있다는 것이고,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규율화된 공적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육체'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공적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담론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몸에 대한 담론을 여성학적 시각에서 추적하고 있는 브라이언 터너는 자본주의적인 근대담론이 정신과 몸을 분리하고 몸을 정신에 예속시켜 통제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감정, 섹슈얼리티, 정서적 생활을 규제하는 훈육적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작동시켜 왔다고 말한다.[15] 푸코의 분석에 더욱 정치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권력을 창출하려는 근대의 담론은 성적 쾌락을 합리적인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끊임없이 추방시켜왔다.[16] 나아가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공적인 영역과 대비된 사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문명과 대비된 자연으로 범주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여성의 영역에 결부시킴으로써 결국 근대화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차원이 가부장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7] 맹목화된 근대주의로 치달은 파시즘의 경우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가혹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성은 재생산기능과 연관된 모성의 차원에서만 신성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인데,[18] 이러한 인식의 기본적인 틀이 『청춘무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작품에서 여성은 근대의 도덕과 법에 의해 규율화된 아폴론적 세계를 위협하는 디오

14) 이태준 소설의 이상적 여성상이 성적인 정체성이 거세된 무성화된 여성임은 그의 또 다른 장편소설인 『성모』를 분석한 심진경의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심진경은 그것을 성적 섹슈얼리티의 억압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작품의 계몽성과 연관시켜 논의하지 않고 있어 본 고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 박사, 2001)

15) 브라이언 터너, 임인식 역, 『몸과 사회』(몸과 마음, 2002), p.42

16)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앎의 의지』(나남출판, 1990)

17) 브라이언 터너, 위의 책, p.48

18)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pp.63-71

니소스적인 힘으로 훈육적 계몽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근대화 프로젝트의 영웅 - 훈육적 주체 / 남성

『청춘무성』에서 근대화과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인물은 원치원이다. 원치원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고 근대적 가치를 자기화시킨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처음부터 근대성을 선취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원치원의 인간됨은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고은심이나 최득주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 여성이 낭만적 감상성과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훈육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원치원은 훈육의 주체로서 여성인물들을 정신적으로 이끄는 관념적 교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발부터 그의 직업이나 신념은 근대가 요구하는 가치들과 갈등하지 않을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원치원은 신학을 전공한 동경유학생으로 여학교 교목을 맡고 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금욕적인 정신'과 근대적 제도기관으로서의 학교 교사라는 '훈육적 교술성'이 그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19] 물론 그가 종교인 즉 목회자라는 사실은 그를 비현실적인 세계로 이끌고 갈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 원치원이 근대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의식과 관련된 현실성의 부족은 그의 미숙함의 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그가 도달하는 근대화 과정은 돈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물질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현실성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근대인으로서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여성들과의 연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수적

19) 원치원의 종교적인 금욕성은 그의 생식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생식주의는 동양적 자연합일과는 구분 것으로 불필요한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으로서의 몸을 통제하고 시간을 관리하려는 서구적 근대주의에 밀착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원치원이 근대에 도달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감성과 성적 욕망으로 표상된 사적 영역으로서의 여성성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사적인 공간을 여성성의 고유한 자질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함으로써 부정해야할 사적인 영역은 곧 여성(성)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원치원이 두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고은심과 최득주는 원치원과 사제관계로 맺어져 있다. 세 사람이 연애관계로 얽혀 애정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조차도 원치원은 '선생이란 개념을 넘어 한 남성적 거대감을 받는 대상' 으로 승격되어 여성인물들을 지도하는 인물이 된다. 그는 여성들을 대할 때 '사나이' 라는 자신의 성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자주 확인한다. 교사라는 직업적 위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성이 여성의 교술자적 위치를 보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자원이 되는 것인데, 원치원은 두 여성들을 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연애관계로 얽혀있는 여성들과의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전근대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원치원이 고은심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정서적 세계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은심은 소녀적 감상성으로 원치원과 애틋한 연애를 한다. 그녀의 미모와 처녀성은 원치원이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매력적 요인이 되어 둘 사이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하게 하며 결국 결혼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원치원은 이야기가 진행되어 갈수록 고은심과 정서적으로 관계 맺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가 처음으로 고은심의 애정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익명으로 넥타이를 보내준 사람이 고은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이다. 그 역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서정적인 감정에 감염될까보아' 일부러 엄숙한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 돈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애정이라는 정서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과장된 노력이 애정어린 호의마저 돈으로 지불하는 지나친 엄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최득주의 방해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도 원치원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랑을 꿈으로 보는 고은심의 낭만적 단순성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현실적인 설계'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고은심과의 감정적 소통을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원치원의 시도는 동경에서의 동거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고은심과 원치원은 우연히 동경의 친구의 집에서 만나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한다. 서로에게 애정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심지어 한 방에서 자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애정에 감염되는 것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관계가 연애와 결혼으로 발전하지 말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감성과 욕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한 정서에 기탁한 관계가 '맹목적인 인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감정에 의탁하여 맺어진 인간관계나 행동은 모두 과거에 속한 인습적인 것 곧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연애와 결혼이 부정해야할 과거로서의 전근대성과 통합되고, 감성과 성욕을 억압하는 금욕주의가 근대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임이 분명히 드러난다.[20] 이렇게 볼 때 『청춘무성』에서 추구하는 근대성은 감성이 배제된 도덕적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공적인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성을 억압함으로써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자는 모순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의 연애관계의 청산이 근대문명의 강한 충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원치원은 고은심의 약혼자인 죠오지 함을 만난 후 고은심을 자기세계로부터 완전히 추방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죠오지 함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가치를 자신이 가지지 못해다는 자격지심에서 비롯된다. 죠오지 함은 작품 전체를 통해 근대성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서양문명으로서의 근대를 완전히 자기화시키고 있는 완미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가

20) '감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이광수의 『무정』의 계몽성과는 상반되는 점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광수는 개인의 '감정'으로서의 정서적 감응을 근대성의 주요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정하는 전근대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양자가 지향하는 근대의 내용도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근대의 구성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태준의 계몽주의를 이광수와 비교하여 시대의 긴장을 상실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자질은 바로 애정에 연연하지 않은 이성적인 태도이다. 그것은 '문명의 세련성'이라고 지칭되는데, 이러한 근대문명의 세련성을 갖춘 혹은 그것에 자극 받은 두 남성에 의해 고은심은 거추장스러운 감정의 짐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약혼녀를 만나기 위해 동경까지 찾아온 죠오지 함은 고은심에게 강한 애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는 고은심과 원치원이 서로 연인관계임을 확인한 후 원치원에게 고은심을 남기고 '깨끗이' 떠나는 것이고 이러한 '문명국 신사'의 처신에 충격을 받은 원치원 역시 고은심에게 자신을 떠나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연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고은심과의 연애관계를 외부적 충격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충만한 근대성으로서의 죠오지 함의 역할은 다름 아닌 감정적 영역을 삭제하는 것이다.[21] 여기에서 근대의 도구적 이성이 감성의 영역을 영토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여성은 전근대라는 시대적 과거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적인 공간에서의 감성을 담지한 근대의 타자로 정체성이 제시됨으로써 근대에 의해 추방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죠오지 함과의 만남이 원치원에게 현실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 원치원이 현실성의 부족을 인식하기는 최득주와의 만남에서부터 이다.생계를 위해 까페여급으로 나가는 최득주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그는 현실사회에서 돈이 가진 위력과 자신의 무능력을 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득주의 자극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못한다. 학교와 목

21) 이성과 합리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구적 근대가 계몽적 이상향의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작품이 발표된 30년대 후반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문제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동양론과의 관계 때문인데, 이 작품에서 서구적 근대를 이상적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제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동원한 동양론에 대한 비판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 시기 이태준은 일제가 시행하는 통치의 기본적인 내용을 근대라는 모델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그가 내보이는 근대주의는 일제의 통치를 수용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직을 그만두고 동경에 온 그가 하는 일이란 여전히 독서와 사색이라는, 경제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여성이 근대성의 자질을 확보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전근대성과 연결되어 있어 그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박으로 작용할 뿐인 것이다.

반대로 작품에서 추구하는 남성성은 근대적인 문명의 메타포로 나타난다. 원치원이 고은심과 결별하며 본격적으로 근대화프로젝트에 자신을 동질화시키는 출발점에서 내보인 그의 결단은 다름 아닌 '사나이로의 재생'이다. 그는 죠오지 함에게서 받은 근대문명의 열등감을 사나이다움의 부족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여기서 젠더적 메타포로 근대 문명의 내용이 치환된다. 그리고 그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즉 사나이다움을 획득하기 위해 고은심과의 연애관계를 청산하겠다고 결심한다. 고은심에 대한 그의 애정 자체가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다. 고은심과 죠오지 함의 결혼을 상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에서 그는 갈등에 휩싸이기도 한다. 다만 그렇게 연애관계를 지속하여 애정이라는 정서에 고은심과 함께 동화되어서는 사나이다움으로서의 근대문명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죠오지 함이라는 근대문명의 표상을 통해 전달된 충격의 내용이 기실 '사나이다움'이라고 하는 남성적 정체성과 동일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곧 정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원하는 가치의 획득을 위해 자기행동을 취하는 적극성이 근대문명을 구성하는 이념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투쟁과 쟁취를 자기 생리로 하는 경쟁적 획득 논리로서의 근대의 성격이 사나이다움이라는 남성적 정체성의 명칭과 결부되면서 젠더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결국 작품에서 남성성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추구해야 할 계몽의 절대적인 이상이며 그와 마주선 여성들의 정체성은 전근대적인 속성으로서 계몽의 추진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춘무성』에서의 계몽 담론이 가부장적인 성억압과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나는데, 고은심과의 애정의 좌절은 이후에도 원치원을 근대인으로 완성시키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수리사업으로 부상을 당한

원치원은 자신을 찾지 않는 고은심의 차가운 태도에 자극을 받아 다시 한 번 '사랑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아 일어섬으로써 결국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정서적 관계의 좌절이 역으로 사회적 참여를 완성시키는 이러한 인식의 구도는 심지어 결혼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심각성을 더한다. 최득주는 고은심에게 원치원과 결합할 것을 설득하면서 그녀를 치원의 '비서'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결혼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부관계마저 정서적인 요소를 철저히 부정하려는 과도한 의지가 드러난다. 고은심으로 상징되는 정서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그와의 애정관계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억압함으로써 원치원은 비로소 근대라고 하는 기호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으로, 근대성이 성취되어 가는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처녀적 순수성과 결부된 정감으로 드러나는 여성의 세계는 작품에서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게 되는 것이다.

계몽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여성의 정체성을 억압하기는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데서 더욱 표나게 드러난다. 원치원이 근대적 질서에 통합되는 데 있어 그에게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조건은 바로 성적인 욕망의 억압이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성적 욕망은 '여인됨' 즉 여성적 젠더를 구성하는 자질로 최득주에게 부여된 특성이다. 작품에서 그것은 이성적 사고를 가로 막고 사적인 욕망에 매몰케 하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인데, 따라서 성적인 욕망의 부정은 근대성의 성취와 동일한 의미로 드러난다. 물론 원치원이 본래부터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최득주나 고은심을 떠올릴 때 그녀들이 입술과 냄새, 그리고 눈동자와 같은 감각적인 기관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22] 원치원은 육체적 욕망에 초연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최득주에게 도덕적인 질타를 할 때조차도 그녀가 발산하는 성적인 유혹에 강한 충동을 느낄

22) 최치원이 고은심, 최득주와 헤어질 결심을 하며 떠올리는 그녀들의 이미지는 전적으로 성적인 것이다. 고은심은 '새뽀얀 목덜미'와 '상큼하니 끼치는 분내'로, 그리고 최득주는 피처럼 '빨간베니'로 나타나는 것으로 원치원의 성적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춘무성』, 위의 책, pp.257-259.

만큼 육체의 욕망에 강하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끊임 없이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하며 자기 의식의 세계로부터 밀어내는 힘든 노력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고은심과 잠시 동거의 생활을 할 때 그가 느끼는 성적인 욕망과 그 억압성은 최고조에 달한다.

"뭘 그렇게 남 손을 뚫어지게 보세요?"

"'야사이사라다'에 나오는 '애스파라가스' 라구 있지요?

"저어 파 같은 거요?"

"은심이 손가락을 '애스파라가스' 처럼 '마요네소쓰' 를 꼭 찍어서...."

하고 치원은 꿀꺽 침을 삼키며 눈을 치뜬다.

그런 욕망으로 보면 은심은 손가락만이 아니다.

치원은 전신의 피가 일시에 머리로 쏠리어 눈앞이 아찔해 더듬더듬 일어서 나오고 만다.

'참자! 얼마나 사랑에 순수한 우리냐!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기만 할 수도 있는 거냐!'

치원은 푸른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사죄하고 그런 죄스러운 욕망이 깨애끗이 피에서 가라앉기를 기다려서야 은심에게로 다시 가군한다.[23]

고은심의 손을 아스파라가스에 비유하며 마요네스에 찍어먹고 싶다는 표현에서 원치원의 성적 욕망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죄스러운 욕망' 이라고 부정하고 억압하는 한편 깨끗하게 자신의 피에서 그러한 욕망이 씻어나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성적욕망을 죄와 불결함 등의 기독교적 이미지로 표현하며 그것을 억압하려는 금욕적인 의지가 가열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이 기독교의 금욕주의적 윤리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막스 베버의 지적처럼 자본주의적인 근대로 나

23) 이태준,『청춘무성』, 위의 책, p.220

아가는 원치원의 계몽의 도정에서도 성적인 욕망은 금욕적인 종교의 힘을 빌어 부단히 억압하고 밀어내어야 하는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거세된 여성성, 확인된 젠더경계

계몽의 담론이 지향하는 최종의 종착지는 근대화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춘무성』에서도 인물들은 근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성취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현실성이 결여되었던 원치원은 고은심과 최득주와 결별을 계기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로 거듭나며, 고은심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모교의 교사로 그리고 최득주는 여급을 위한 사회사업가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인물은 이성과 생산, 그리고 투쟁과 경제성의 가치를 내면화시킨 인물이 된다. 그것은 결국 사적인 욕망에서 공적 세계로의 비약을 이룩하는 것이고 작품이 지향하는 의미를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남성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일정부분 발전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여성인물들에게서 여성성이 탈각되고 중성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최득주의 경우 여급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에 참여하지만 여급에 대한 그녀의 시각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여성 자신의 시각이 아닌 이전에 원치원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에 그대로 밀착되어 있다.

'나이는 모두 생활욕과 이성욕과 행복욕에 넘칠만치 찼다. 그런데 생활을 모르고 이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른다. 모른다기 보다 정당한 이해와 표준을 갖지 못한 것이다. 저열한, 몰염치한 욕망인 것이다. 거시에 무슨 생활의 이상이 있을

건가? 이상이 없이 욕망뿐의 생활, 거기서 행동되는건 타락과 범죄 이상의 것은 있기 어려울 것 아닌가?'[24]

성적 욕망은 저열하고 몰염치한 것이며 그것의 결과는 타락과 범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적인 욕망 자체를 이처럼 죄성과 관련지어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원치원이 최득주에게 보냈던 비판적인 시각과 완전히 일치한다. 스스로 놓여 있었던 경험과 갈등은 사라지고 우월한 교술자의 이성적 시각을 자기화함으로써 자신이 놓여 있었던 영역을 열등한 것으로 다시 부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자에서 타자화시키는 우월한 시각으로 옮겨 앉게 된 최득주는 나아가 '법'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공적 질서에 완전히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된 최득주는 돈을 물쓰듯 하는 윤천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육체적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소절수 책을 몰래 꺼내 돈을 인출하던 중 체포되어 수감된다. 사회사업가로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법의 단련을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이야기의 소제목을 '악의 꽃', '죄와 벌'이라고 붙이는 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정적인 진정성과 육체는 다시금 악이라거나 죄로 지목되면서 '법'에 의해 통제되고 규율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과제의식 단련을 통해 최득주에게 국가나 사회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제도화된 질서 속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성적 욕망은 이성이 지배하는 도덕적인 규율과 공적 지배 속으로 통합됨으로써 타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힘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근대문명을 위협하는 성적 욕망이 법이라고 하는 근대의 가장 강력한 억압기제에 굴복함으로써 현실원칙의 지배를 수용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의 제도와 논리를 수용한 최득주가 이후 현실사회와 갈등 없이 문화사업에 주

24) 이태준, 『청춘무성』, 위의 책, p.291

력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원치원을 '은인(恩人)'으로 숭상하며 일방적으로 그에게 보은의 심정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수감생활 이후 최득주에게는 제도적 현실을 위협했던 기운이 거세되고[25] 원치원과의 갈등도 일체 사라진 상태에서 그의 순응적 혹은 보조적 동조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고은심의 경우도 근대성의 획득이 감성적 자질의 포기와 연결되면서 여성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은심의 경우 최득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교 교사가 된 후 그녀가 보여주는 성격상의 변화가 '차가움'이라는 점에서 감성이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로 원치원이 입원해 있고 상태 또한 위중하다며 병문안을 부탁하는 최득주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치원을 찾지 않는 냉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동경에서 자신을 물건 다루듯 죠오지 함에게 떠밀었던 과거 일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사회인이 됨으로써 더 이상 감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려는 예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인 정체성이 무화된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로 나간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참여가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적인 활동에 있어서 젠더 경계는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엄존하는 것이다. 여성의 역할은 모성이나 남성의 보조적인 것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최득주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은 확연히 드러난다. 육체의 욕망에 시달리던 악마적인 탕녀에서 사회사업가로의 그녀의 변화는 매우 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득주가 사회사업가로 변모

25) 사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최득주는 원치원에게 강력한 도전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원치원이 관념적인 교술성으로 최득주에게 윤리적 교훈을 시행하지만 최득주는 좀처럼 그의 종교적 윤리나 도덕적 훈화에 동의하지 않고 성적인 욕망의 현실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이후 최득주는 매우 순종적인 자세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원치원의 금전적인 후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사업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최득주는 원치원이 건네준 십만원으로 재락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한다. 또 원치원을 죄에서 구해준 '구세주' 요 인생의 스승으로 숭앙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사고를 당한 원치원에세 〈자기의 다리라도 잘라 주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함으로써 정신적인 종속성을 강하게 노출한다.

그런데 원치원과의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와 더불어 최득주의 역할에서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녀의 역할이 모성에 강하게 긴박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득주는 여급들과 사생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그녀는 여급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한편 사생아 입양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또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맡아 기른다. 한마디로 재락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최득주가 하는 사업이란 '모성보호' 차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자신도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참여의 내용이 이처럼 모성이라는 기존의 여성적 역할에 한정되는 데서 젠더분리의 전략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에 여성이 참여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위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얼핏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정신에 인도되는 보조자이거나 전통적으로 분할된 여성의 성역할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함으로써 젠더 분리의 가부장제적 전략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득주의 모성이 양육의 역할만에 한정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고 오직 사생아로 맡겨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기르는 양육의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상황설정에는 그녀의 과거경력과 함께 여성의 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의 기제가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다는 과거의 경력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가부장적 윤리인식이 암암리에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최득주의 이상적 모델을 통해 성적인 이미지가 거세되고 헌신성만이 강조된 마리아적

인 순백의 이미지가 창조됨으로써 여성의 성은 다시 한 번 거부된다. 즉 모성에 있어 아이를 낳는 기관으로서의 여성의 성적 의미가 탈각되고 오직 헌신성만이 강조됨으로써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이상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득주의 모성적 역할은 사적인 의미가 배제된 공적인 봉사로 사회화되고 '참여' 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작품에서 지향하는 것이 근대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공적 참여를 통해 여성을 사회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계몽적 서사가 욕망하는 근대의 최종적 목표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근대화프로젝트는 곧 여성억압의 중요한 차원을 담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음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곧 여성성이 거세되는 한편 헌신성에 초점을 맞춘 모성적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다.[26] 사회화된 공적 참여로서의 모성은 사회의 어머니, 국가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경계가 넓혀짐으로써 여성의 모성적 역할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은심 역시 이러한 사회화된 모성을 선택함으로써 그 의미는 보다 확정적으로 드러난다. 원치원과 결혼을 하게 된 고은심은 최득주에게 그녀가 기르는 아이들을 사생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원치원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최득주가 고사하자 이번에는 고은심 자신의 호적에 아홉 명의 아이들을 자녀로 올리는 것이다. 아홉 명이나 되는 아이를 입양하는데 따르는 있을 법한 여성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갈등은 전혀 무시된다. 모성의 사적인 의미는 상쇄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화된 양육의 의무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역할이 배제됨으로써 모성의 개인적인 차원은 애초부터 삭제된 것이었다. 이로써 여성성과 모순의 관계에서 구성되었던 작품의 근대 담론은 감성과 성적 욕

26) 이정옥은 이태준 장편에 나타난 과도한 모성성을 『성모』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특히 모성이데올로기를 30년대 후반 식민지 담론에서 나타난 모성주의와의 연계하여 분석, 비판함으로써 그것의 시대적 의미를 잘 짚어내고 있다.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여성문학연구3』(태학사, 2000)

망, 그리고 모성까지 공적 영역에 복속시킴으로써 계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젠더억압적 계몽담론은 결국 식민지 지배담론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알려진 것처럼 30년대 말 이후 진행된 총동원체제 하에서 사적인 영역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 한편 '참여'라는 명목으로 사적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폭력적 강제가 시행되었다.[27] 뿐만 아니라 여성성은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에서 부정되어야할 열등한 조선의 특징으로 지목되면서 소위 교양교육을 통해 벗어나야할 봉건적인 조건이었다.[28] 이와 같은 시대적 정황 속에서 사적인 영역으로서 여성성을 부정하고 사회화된 모성을 통해 공적인 영역으로의 참여를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배권력의 목소리에 통합되는 담론일 수밖에 없다. 근대주의와 가부장적 억압와의 연계성이 여기서 다시 확인되거니와 파시즘은 가부장제의 젠더 전략에 더욱 교묘히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은심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득주와 일정하게 구분되기는 한다. 하지만 여학교 교사라는 직업 역시 성역할의 차별적 경계에서 그리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즉 식민지 시대 여학교 교육이 기본적으로 살림 잘 하고 아이 잘 키우는 여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위 현모양처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볼 때,[29] 또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젠더적 성격을 내재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고은심의 역할도 젠더 분리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젠더분리의 성차별적 특징은 원치원의 근대적 성취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모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젠더분리 전략에 통제되는 것과는 달리 원치원의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면모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은심과 헤어진

27) 우에노 치즈코, 위의 책, pp.22-31

28) 조은, 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8-여성』(학술진흥재단, 1995), p.196

29) 조은,윤택림, 위의 글, p.191

후 광산 사업을 시작한 그는 몇 번의 거듭된 실패를 한다. 그러나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과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수감생활을 마친 최득주를 위로하는 것이다. 또 우연히 시작한 수리사업에서도 생명의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투쟁적 정신과 생명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재벌'로 등극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실패는 오히려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투쟁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애물일 따름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원치원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모두에게 숭앙받는 인물로 떠오르는 것이다. 생산과 자본, 그리고 투쟁과 정복이라고 하는 근대의 이념이 원치원이라는 한 인물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일제가 강조했던 지배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일체의 사적인 영역도 용납하지 않는 참여와 투쟁, 그리고 진취성이라는 파시즘적인 명목들이 원치원이 보여주는 근대적 성취에 그대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영웅적 투쟁과 고난을 극복하는 불굴의 생명력은 전쟁을 앞둔 총동원체제 하에서 일제가 의식교화 차원의 캠페인으로 확산시켰던 바로 그 항목들이다. 물론 그것은 이미 근대적 계몽이 던지는 생산적인 긴장력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적 반성력을 잃어버린 근대의 폭력성을 담지한 것이다. 결국 남성적 영웅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주의가 전근대라는 이름으로 여성(성)을 타자화시키고 강압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도달하는 세계란 파시즘으로 치닫는 일제의 지배적인 목소리에 합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웅적 면모가 서사적 현실감을 포기하고 서정적 열정의 단계에 까지 끌어올려지는 데서 타락한 계몽의 모습은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원치원이 행하는 사업은 문화, 교육,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뿐만 합리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단계에까지 자기도취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는 학교를 설립하여 돈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제한 없이 기부를 하는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벌이는 한편 문화회관과 최신식 극장을 설립하여 각종의 문화사업을 시행하고 또 다수의 사회교화기관을 설립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회사업까지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들이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제도기관이라는 점도 문제적이지만 원치원이 희구했던 근대적 성취가 다름 아닌 남성적 영웅성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결국 근대주의의 가장 깊은 차원이 가부장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청춘무성』에서 시도하는 계몽의 목표는 남성적 영웅성에 의해 성취되는 세계이고 근대성은 남성적 젠더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적 욕망과 감성이 여성성이라는 명목 하에 추방되고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 의해 영토화됨으로써 도달되는 이러한 지점은 그러나 결국 국가이데올로기라는 지배담론에 봉사하는, 계몽의 빛과는 반대되는 '어둠'의 문학적 담론이 되는 것이다.

4. 마무리

이 글은 1940년에 발표된 이태준의『청춘무성』을 대상으로 근대성과 여성성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전형적인 계몽담론을 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이항대립적인 분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하면서 근대의 가치를 후자의 영역에서 성취하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근대의 가치에 미달된 열등한 인물로 계몽의 일방적 대상으로 제시된다. 한 사람은 성적 욕망에 매몰된 탕녀로 또 한 사람은 사회의식이 전무한 감상적 소녀의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여성성은 부정적인 억압의 대상이 된다. 반면 남성은 정신과 개념적 사유의 인물로 여성을 훈육하는 주체로 제시된다. 남성이 충만한 근대성에 도달하는 과정은 여성인물들과의 관계를 끊고 여성성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이성과 도덕적 규율을 위협하는 성적 욕망을 기독교적인 금욕주의에 의탁하여 죄로 억압하는 한편 감성 역시 논리적인 사유를 혼미케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거부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근대화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근대성이 여성성을 억압함으로써 도달되는 것으로 양자가 모순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된다.

여성들 역시 남성 인물과의 애정의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활동을 통하여 공적영역에 진입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성이 거세된 무성의 모습으로 제시된다. 육체와 심정적 진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결정적으로 통제됨으로써 제도적 규율에 승복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 역시 젠더 분리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법의 심판과 애정관계의 좌절이라는 통과제의적 단련을 통과한 여성들은 각각 사회사업가와 교사가 되지만 실상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성에게 매우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모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역할에 긴박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적인 역할이 거세되고 양육의 역할만이 남아있는 사회적 봉사로서의 모성이 강조됨으로써 작품에서의 모성은 식민지 지배담론에 봉사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남성의 성취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투쟁과 정복, 그리고 생산과 문명이라고 하는 근대적 이념이 영웅적 모습을 띄고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공적인 참여에 있어서도 성별 위계의 통제가 엄격하게 남녀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으로 결국 젠더 분리의 가부장적인 질서는 고수되고 있는 것이다.

■ 필자 :연세대 강사

참고문헌

이태준, 「청춘무성」,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별은 창마다」,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성모」,서음출판사, 1988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브라이언 터너, 임인식 옮김, 『몸과 사회』,몸과 마음, 2002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앎의 의지』, 나남출판, 1990
심진경,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의 여성섹슈얼리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 2002
이정옥, 「모성신화, 여성의 또 다른 억압 기제」, 『여성문학연구3』, 태학사, 2000
이명희, 「이태준 장편소설 『성모』연구」, 『현대소설연구』, 1994
김양선, 「식민주의 담론과 여성 주체의 구성」, 『여성문학연구3』, 태학사, 2002
조은, 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8,여성), 학술진흥재단, 1996
김은실, 「공사영역에 대한 여성인류학의 문제제기」, 『여성학논집 제13집』, 이화여자대학교, 1994

Abstract

A study of Lee tae joon's novel 『Chung Choon Moo Sung』

Song, In-Hwa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modernity and the femininity in the Lee tae joon's late novel 『Chung Choon Moo Sung』. This novel is based upon the structure of enlightenment narrative, that is notable trait of Lee Tae Joon's novel. So the Modernization project is a essential momentum of this narrative, and the binominal concepts like emotion/reason, private/public, physical/spiritual, natural/cultural, and male/female make the main struggle in this novel. Here I will check how the narrative that pursuits the modernity itself oppresses woman's desire and tries to restraint the woman's identity through the process of narrative and characterization.

This novel divides into two part. the first half is made up a affection discord, and the latter half is constitute of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 Moving onward the latter part, the characters suppress theirs sexual desire for social participation. Here we can find the spacial concept transfers to the metaphor for the time. The former private affection is metastasized to the premodern times, whereas the other turns into the modern world. The problem is here which premodern world is always related to the feminine gender. In this novel, the women are the person who need the

lesson of enlightenment, all the more the femininity that is constituted of woman's character is recognised of obstacle against getting to the modern world. The women in this novel are presented in a 'immature person' who is immersed in girlish loving affair or a 'prostitute' who is captured by sexual desire. They are all unreasonable and don't have any other concern without private passion. Such a images of emotionality and flesh are the woman's original characteristics in this novel. In the same time that are the object that enlightenment passion want to eliminate in the name of modernity. Therefore we can find the premodern symbols are not neutral but something in communicate secretly with the feminine gender in this novel. So the conclusion is that the modernity can be arrived by repressing the woman's identity. The women who get to the modernity eliminate their gender-identity and goes to the social sphere as the mother and teacher, but gender roll is derived from the patriarchism remains strongly. So they only do the secondary roll for heroic man. In the final analysis, the narrative of enlightenment in this novel that the public sphere completely controlled the private sphere serves to the ruling colonial narrative of 'Nation Mobilization Order'.

key word : enlightment narrative, sexual desire gender-identity, social sphere, private sphere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